

# 제57기 공군사관생도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2점 20문항, 3점 20문항 총 40문항입니다.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개요 수정을 위한 생각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주제문 수정  
고령 사회에 대비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고령화 현상의 원인 설명을 추가  
·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발생

제 목 :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주제문 : 고령자를 위한 의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론 : 우리 나라의 고령화 진행 양상

본론 :

1.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1) 재정정책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출 것

(2) 산업·인력정책 :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활용 방안 마련

2. 고령화의 개념과 원인

·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3.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노령 계층은 생산 계층이 아닌 소비 계층

· 저축 감소로 인한 투자 축소

· 세금 수입 감소와 사회 보장 비용 증가

(2) 노동 생산성 악화

· 산업 경쟁력 약화

· 경제 성장의 둔화

· 경기 침체의 장기화

결론 : 고령화 대책 마련의 시급성 강조

○ 논지 전개상  
어색함  
이동

○ 불필요한 내용임  
삭제

○ 논지를 구체화함  
· 투자와 휴가 사이의 시간적 격차 때문에 대책 마련을 미루는 경향 지적  
· 대책을 미루면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 강조

① ㉠

② ㉡

③ ㉢

④ ㉣

⑤ ㉤

2. <보기>의 보조관념을 이용하여 ㉠ ~ ㉣의 비유를 완성시킬 때,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3점]

—<보 기>—

- ㉠ 죽은 팬드라미처럼
- ㉡ 달걀 노른자처럼
- ㉢ 용수철처럼
- ㉣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 ㉤ 공중에 뜬 생선 가시처럼
- ㉥ 거대한 빵처럼

- ㉠ (     ) 튀어오르는 저 동지(冬至)의 불빛들
- ㉡ (     ) 노랗게 굵은 달이 아버지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흔들 때마다
- ㉢ 내 마음은 (     )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 ㉣ 어두운 차창 밖에는 (     )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 나무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3. <보기>의 ㉠ ~ ㉣와 이것들이 포함된 예문 ㄱ ~ ㅍ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점]

—<보 기>—

문장은 여러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문장 성분은 단어나 구(句), 절(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절을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하고, 성분으로 안긴 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절은 문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 명사절, ㉡ 서술절, ㉢ 관형절, ㉣ 부사절, ㉤ 인용절로 구분한다.

<예문>

- ㄱ. 표범은 막사 가까이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 ㄴ. 영화는 그 사람에게 책을 빌려준 기억이 없었다.
- ㄷ.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예”하고 대답했다.
- ㄹ. 그는 맏아들이 의사였고, 둘째 아들이 공무원이었다.
- ㅍ. 올해에도 농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ㄱ	ㄴ	ㄷ	ㄹ	ㅍ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 4. &lt;보기&gt;를 퇴고하고자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lt;보 기&gt; —

‘일년지계(一年之計)는 재어춘(在於春)이요, 일생지계(一生之計)는 재어소(在於少)’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일생의 계획은 청소년기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절기를 구분하여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 심오(深奧)해짐에 따라 ㉢ 직업이 다양해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새해 초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매일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나면 계획과 실천의 성과를 확인하고 반성하며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 한편 개인의 인생에 대해 인생의 목표와 그에 합당한 실천 계획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 그런데 적절한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아끼며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 특히, 청소년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달콤한 영광은 쓰디쓴 노력의 결실인 것입니다.

- ① ㉠은 내용의 흐름상 ‘농경 사회에서도 봄에 한 해의 농사 계획을 세우고, 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지었습니다.’로 수정한다.
- ② ㉡는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여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복잡해짐에 따라’로 고친다.
- ③ ㉢는 주술 관계를 고려하여 주어를 ‘직업이 다양해진 현대인들도’로 수정한다.
- ④ ㉣는 문장의 접속 관계로 볼 때 어색하므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로 바꾼다.
- ⑤ ㉥를 앞 부분에 있는 ‘실천 계획’과 연관지어 볼 때 ㉤의 위치로 옮긴다.

[5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흔히 낡은 낱말들을 현대적인 새로운 사상을 담을 수 없는 헌 포대처럼 멸시한다. 그러나 위대한 철학자들은 낡은 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했다. 이런 ㉠ 말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점차 익숙해지면 뜻이 자명한 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 물리학의 ‘원자(Atom)’라는 말은 희랍의 자연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낡은 말인데, 그 동안 줄곧 여러 가지 의미들로 사용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물리학의 기초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다듬어진 말이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비논리적이니 혹은 비과학적이니 해서 돌보지 않는 전통적인 말들 속에는 우리 겨레의 정신 생활과 더불어 자라난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철학적인 직관으로 드러내어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철학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낡고 오래된 말들은 우리의 사유를 굳어버린 틀처럼 구속해서 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그런 말들은 그 원초적인 생동성을 되살리면서 새로운 깊이를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의 생동성을 살리고 그 창조적인 힘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이다. 말은 그 겨레의 삶의 역사 속에서 자라난, 정신적인 깊이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말은 그 자체가 고정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데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철학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말들도 곧 통속적인 유행말로 굳어져 그 생동성과 깊이를 잃어버리고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알맞은 말의 발견을 통해서 큰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말의 경화와 의미 상실을 통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철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경화와 의미 상실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는 데에 말의 숙명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은 또한 언제나 이른바 ‘말장난’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위한 말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지 않고는 드러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는 현실, 그러나 또한 굳은 말의 틀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말을 다루어야 한다.

(다) 말이 표현하는 이른바 ‘현실’을 꼭 물체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물체’에 붙은 꼬리표처럼 의미를 고정시키고 일의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현실의 깊이 있는 의미가 거둬거둬 밝혀지는 것은 일의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는 생동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스스로 과학적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힌 일부 현대 철학자들이 모든 중요한 말들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을 고정적인 기호로써 대신하려고 하는데, 현실의 복잡한 구조와 생동적인 깊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의 생산적인 다의성(多義性)을 결함이라고 생각할 만큼 저들의 철학적인 통찰은 무디다. 말을 일의적으로 고정시키고 나면 ㉡ 현실은 이미 그 말을 떠난다. 그러므로 말을 일의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다.

(라) 우리의 정신 생활과 더불어 살아 있는 우리의 말을 떠난다면 참다운 철학은 나타날 수도 없고 전개될 수도 없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힘’뿐만 아니라, 사물을 언제나 일정한 각도에서 드러내는 ‘표현하는 힘’을 가졌으며, 또한 현실의 숨은 깊이를 밝히는 ‘창조적인 힘’을 가졌다. 말은 우리의 논리적인 이성의 조작품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인 삶의 피조물인 동시에 우리의 역사적인 삶의 창조주이다. 우리는 말 이전의 현실을 모른다. 그것은 어둠이며 혼돈이다. 말을 통해서 이 어둠과 혼돈 속에 빛이 나타나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가 드러나고 현실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의 빛을 밝힘으로써 알게 되며, 말의 울타리 안에 살게 된다. 말은 이렇게 우리 열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열이 빛을 발할 수 있고, 열의 생명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9 ~ 1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그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별판엔  
나의 젊은 녀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위에 밤을 마련할 뿐.

잠들지 마라 우리의 강아.  
오늘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못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 줄  
㉠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 강원도치와 마주 앉은  
나는 울 줄을 몰라 외롭다.

—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나)

나는 이제 너에게도 ㉢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흔들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다)

㉣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가득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 다니는  
㉤ 몇 송이의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9. (가)~(다)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는 반어적인 표현 기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다)의 시적 화자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가)에는 대상에 대한 바람이, (나)에는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나)는 역설적 표현과 함께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10. ㉠ ~ ㉡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이 나타난다.
- ② ㉡ - 고향을 상실하고 낯선 땅을 떠돌아야 하는 유이민의 모습이다.
- ③ ㉠ -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 주겠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 ④ ㉡ - 과거의 상실과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 ⑤ ㉠ - 화자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존재이다.

## 11. &lt;보기&gt;의 화자 [갑]이 (나)의 ‘너’ [을]과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lt;보 기&gt;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라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lt;벼&gt;

- ① 갑 : 이웃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에서 큰 힘과 희망을 얻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② 을 :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므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갑 : 남을 위해 인내와 희생을 하며 살다보면 겸손해지고,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 ④ 을 :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⑤ 갑 : 현실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세를 위해 이웃을 돌보며 살아보세요.

## 12. (가)의 화자가 [A]에서 드러내고 있는 정서와 유사한 것은? [3점]

- ① 흥안령(興安嶺) 가까운 북변(北邊)의 / 이 광막(曠漠)한 벌판 끝에 와서 /  
죽어도 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 위에 / 오늘은 이레째 암수(暗愁)의 비 내리고 /  
내 망나니의 본받아 / 화투장을 뒤흔치고 /  
담배를 눌러 꺼도 / 마음은 속으로 끝없이 울리노니 /  
아아 이는 다시 나를 과실(過失)함이러뇨.

— 유치환, &lt;광야에 와서&gt;

- ②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 여섯 해가 지나갔다. //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 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  
오는 봄엔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lt;꽃덤불&gt;

- ③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 //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이형기, &lt;낙화&gt;

- ④ 아, 여기 누가 / 성(性)보다 깨끗한 짐승들을 몰고 오나 /  
저무는 도시와, / 병든 땅엔 / 머언 수평선을 그어 두고 /  
오오오오 기쁨에 사나운 짐승들을 / 누가 이리로 몰고 오나 /  
아, 여기 누가 / 죽음 위에 우리의 꽃들을 피게 하나.

— 김현승, &lt;파도&gt;

- ⑤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  
여름 산(山) 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 서정주, &lt;무등을 보며&gt;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미술이란 우리에게 본질적이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고와 신념, 가치관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술은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내면의 진실을 외부로 드러내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명백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텔레비전과 달리 미술은 신비에 싸인 것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미술가들은 감상자가 그들 자신의 생활과 직접 연관시킬 수 있도록 실제의 체험을 꾸밈없이 표현한 사실적 이미지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파블로 피카소가 대단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은 그가 작품에서 현실 세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그는 전례없는 독창성을 획득하면서도 사실주의의 외양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 결과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관람자들과 창조적 탁월함을 찬미하는 관람자들 모두를 자신의 애호가로 만들 수 있었다. 반면에 어떤 미술가들은 기계 시대 역동성의 본질적이면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격을 드러내고, 불안감 혹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같은 감정을 따로 분리하여 표현하기 위해 추상에 의지했다.

한편 현대 작가들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아주 미미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의식의 또 다른 반응으로, 자기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느끼며, 자신만의 고유한 주제나 재료, 기법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매우 개인적인 양식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술은 작품 감상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다양한 표현 수단은 현대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장려되기도 하였다. 미친 듯이 옛 방식을 폐기해 버리고, 뒤쫓아다니는 옛 기억들을 불태워 버리며, 미술을 새롭게 구축(構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가운데 ‘모더니즘’이 생겨났다. 모더니즘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는 의무감과 불굴의 의지로 가득찬 탐구였다. 모더니즘의 역사는 미술의 역할이나 기법, 파라미터\* 그리고 의미에 대한 재정의의 역사이다. 당연히 예술적 전통이나 현재의 제 조건들은 아무런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미술가들도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계나 불가능도 믿지 않으려 했으며 한계를 타개하고 예상을 뛰어넘으려 노력해 왔다.

현대의 미술가들은 20세기의 특징인 테크놀로지를 미술에 도입했다. 그들은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어떤 새로운 매체나 재료에도 개방적이었으며, 특히 이제까지 아무도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미술가들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착안하기 시작했으며, 네온으로 채색을 하였고, 컴퓨터로 선을 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기계나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자 예술에 있어서 기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재정의가 내려지게 되었다. 사실상 많은 미술가들이 기술적 지식과 그 구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기교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술성을 판단하는 엄밀한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재료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가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

인 물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천연 물질과 인공 물질, 고도의 전자 제품들에 이르는 다양한 재료의 감각적 특성을 감지하는 데에 포도주 감별사와도 같은 예민함을 보여 왔다. 과학기술 특히 통신 매체의 내용과 형식에 매료되자, 비디오나 컴퓨터로 조작하는 것과 같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술과 팝 아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이미지와 기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미술이 왜 이전의 미술과 달라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몇 가지 이유를 해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미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특별히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적어도 상당한 양의 체험과 경험을 요구하는 하나의 기술을 습득한 것이다. 그리하여 미술은 의학을 전공하는 것이나, 또는 피아트 자동차는 수리하지 못하고 시보레만을 수리할 수 있는 기계공의 작업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활동 분야에서는 이런 전문화 현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전문화 현상으로 인한 괴리감이나 생소함에 거부감을 갖는다.

미술의 전문화 현상이 야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대개의 경우 미술의 중심 대상이 ‘사물’에서 ‘아이디어’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 실망스러운 변화이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놀랍고 의미심장한 사물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이디어에 근거한 미술이 가지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뉴스 보도는 본질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제공해 주는 반면, 현대 미술은 그 내용을 우리 스스로 씹어서 소화시키도록 요구한다. 뉴스 보도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주지만, 예술성이 뛰어난 미술은 구체적인 것, 명료한 것을 넘어서 개념이나 함축적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시각과 촉각, 청각이 복합된 정보에 깊이 몰두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 즉 아이디어를 분명히 밝혀가면서 우리는 그 작품이 지닌 미적인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창조적 사고는 작품 감상의 핵심을 이룬다.

\*파라미터 : 매개변수, 재료.

###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현대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작품에 접근해야 한다.
- ② 현대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다양한 표현 수단이 나타났다.
- ③ 전문화된 현대 미술에서 느끼는 괴리감이나 생소함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 ④ 현대의 미술가들에게 기교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술성을 판단하는 엄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 ⑤ 현대 미술에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술과 새로운 이미지와 기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14. ㉠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2점]

- ① 화룡점정(畵龍點睛)
- ② 어부지리(漁父之利)
- ③ 양수겸장(兩手兼將)
- ④ 이구동성(異口同聲)
- ⑤ 온고지신(溫故知新)

15. 위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현대 미술의 감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대상을 얼마나 추상화하여 표현했는지를 살핀다.
- ② 전통적인 표현 기법을 어떻게 변용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 ③ 정보화 매체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 ④ 불안감이나 분노 등 어떤 심리적인 태도가 드러나는지 확인해 본다.
- ⑤ 작품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추리해 본다.

16. 많은 텔레비전을 포개어 다양한 이미지들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위 글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술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법과 재료를 찾는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뉴스 보도처럼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중성을 높였다.
- ③ 작품에 담겨진 개념이나 함축적 의미를 밝혀가다 보면 독특한 미적 매력을 느낄 수 있다.
- ④ 우리의 사고와 신념, 가치관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시각적 장치를 제공한 것이다.
- ⑤ 새로운 소재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17 ~ 20]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름 우희 땃넙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망녕

어름 우희 땃넙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 주글망녕

정(情) 둔 오늬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즈미 오리오.

서창(西窓)을 여러흐니 도화(桃花)ㅣ 발(發)호도다.

도화(桃花)는 시름 업서 소춘풍(笑春風)호느다 소춘풍(笑春風)호느다

넉시라도 님을 혼디 녀넛 경(景) 너기다니

㉠ 넉시라도 님을 혼디 녀넛 경(景) 너기다니

벼기시더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디 두고 소\*해 자라 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하니 여흘도 도하니.

(후략)

(나)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요마른\*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중략)

대동강(大洞江)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셔

넬빅예 아즐가 넬빅예 연즌다 샤공아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넌편 고즐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다) 꿇도리 저 꿇도리 어엿부다 저 꿇도리

어인 ㉡ 꿇도리 지는 들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러 네어  
사창(紗窓) 여윈 즘을 술뜨리도 췌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리는 너 췌인가 호노라.

\*경경(耿耿) : 근심이 많은.

\*고침상(孤枕上) : 외로운 베갯머리(잠자리).

\*비올 : 비오리.

\*소 : 연못.

\*고요마른 : 사랑하지마는.

\*림난디 : 음란한 줄.

## 17. (가) ~ (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나)의 화자 모두 주어진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② (나)와 (다)에는 화자가 여성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뚜렷한 단서가 있다.  
 ③ (다)와 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은 작가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다.  
 ④ (가)와 (나)에는 님이 다른 여인을 탐하는 것을 염려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보인다.  
 ⑤ (가)에는 시조의 형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시조 발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8. &lt;보기&gt;는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과 예시된 시가와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lt;보 기&gt; —

우리 고전 시가에 유달리 많이 나타나는 정조는 ㉠ 이별의 정한이다. 그러나 그 이별의 정한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

우리 시가에서는 주로 여성 화자를 빌어 그리움과 이별의 정한을 표현한 후, ㉡ 재회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러나 곧 시적 화자들은 ㉢ 재회의 어려움을 자각하게 되며, 그 결과 체념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만남에 대한 염원을 갖게 된다. 현실적으로 다시 만날 수 없다면 ㉣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라도 만나겠다는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때로는 ㉤ 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여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 그것이 우리 시가에 나타나는 절절하고 영원불멸한 사랑이다.

- ① ㉠ -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드냐.

이시라 흐더면 가랴마는 제 구투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황진이 시조

- ② ㉡ - 잡스와 두어리마는 / 선희면 아니올세라//

설운님 보내옵노니 / 가시는 듯도서 오쇼셔

— 고려가요, <가시리>

- ③ ㉢ - 막음이 어린 후(後) | 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흐노라.

— 서경덕 시조

- ④ ㉣ -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종(百種) 배(排) 흐야 두고,

니를 혼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 고려가요, <동동>

- ⑤ ㉤ -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안니다가  
향 뜨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흐노라.

— 정철의 가사, <사미인곡>

## 19. ㉠과 유사한 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어는? [2점]

&lt;보 기&gt;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lt;초혼&gt;

- ① 이름                      ② 서산                      ③ 사슴                      ④ 소리                      ⑤ 돌

## 20. (가) ~ (다)의 화자들이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시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 님은 가고 없어 홀로 지내는 밤은 슬픔만 가득합니다.
- ② (다) - 그렇지 않아도 님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귀뚜라미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 ③ (나) - 그랬군요. 저는 님을 태우고 가는 뱃사공이 원망스러웠어요. 한번 가면 다시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 ④ (가) - 저의 님은 님이 되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자고 굳게 언약했는데 그렇게 굳은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 ⑤ (나) - 그랬군요. 사랑에 모든 것을 걸고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도 버리고 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저의 님도 무정하게 떠나버리더군요.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사회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논제는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뉘어서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정보사회만큼 그 성격과 전망에 대해 낙관과 비관의 첨예한 논쟁을 보이고 있는 테마도 없을 것이다. 낙관론의 입장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정보사회에 이르러 대부분 해소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컴퓨터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인 이른바 ㉠ 컴퓨터토피아(Computopia)가 실현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설사 컴퓨터토피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낙관론의 근거에는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나 자본주의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의 도래라는 입장이 깔려 있다. 사회변동의 측면에서 ㉡ 정보사회의 사회적 독자성을 뚜렷이 인정하는 입장이다.

반면 비관론은 정보사회가 결코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후기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봉합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이므로 자본주의사회와 다를 것이 없으며,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의 연장에 불과한 만큼 ㉢ 자본주의적 모순과 병폐를 그대로 ㉣ 안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급간 불평등이나 권력의 독점과 같은 현상이 정보사회라고 해서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첨예한 입장 차이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한편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시장정보를 신속하고 광범하게 확산시킴에 따라 시장은 점점 더 효율적인 ㉤ 완전경쟁 모델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장의 온갖 효율성이 결국은 전체 경제를 물가 상승이나 실업의 위협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규모 금융자본의 이동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점점 더 국제 금융자본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경기변동의 진폭과 그 파괴력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는가 아니면 악화되는가 등의 문제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정보화의 정치 분야의 쟁점은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정보기술의 진화로 말미암아 지배집단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는 입장과, 이와 반대로 지배자의 통제와 감시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회 분야의 쟁점은 공동체의 해체인가 아니면 강화인가에 놓여 있다. 전자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일면적-단편적-선정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이 확산되며, 대면적-정서적-전인격적 의사소통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사회는 와해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권위나 인격의 제약이 심했던 전통적 공동체와 달리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평등성, 쌍방향성, 익명성, 분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탄생한 가짜 공동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가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 분야의 쟁점은 문화의 다양화와 획일화이다. 누구나 원하는 정보와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다양화 논자와, 특정 국가 중심의 거대기업이 뉴미디어 분야를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획일화 논자들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정보사회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의 첨예한 대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어떤 문명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문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증대와 인간성의 회복이 담겨야 한다. 정보혁명에 의한 새로운 생산력의 모색은 한편으로 과거 시대의 질곡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 진행의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구획을 만드는 불확실성의 확대라는 측면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의 이중성 말이다. 정보화로 인해 장밋빛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기술결정론, 기술공학적 유토피아론, 기술낙관론으로 비판받아야 함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주요 내용>

조선 인조 때, 박 처사는 딸을 둘 두었는데, 둘째 딸의 배필이 병조판서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임을 알고 청혼한다. 남편은 박씨가 박색임을 알고 대면조차 하지 않았는데,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청하여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시비 계화와 지낸다. 박씨는 3년 뒤 액운을 벗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어 화목하게 잘 살게 된다. 그 뒤 중국의 용율대·용골대 형제가 3만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을 때, 박씨는 남자보다 뛰어난 기상으로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낸다.

차설(且說), 울대 군중에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화광이 충천하니, 부인이 계화를 명하여 부적을 던지고, 좌수에 홍화선(紅花扇)을 들고, 우수에 백화선(白花扇)을 들고, 오색 실을 매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당(避禍堂)으로부터 대풍이 일어나며, ㉠ 도리어 호진(胡陣) 중으로 불길이 돌치며 호병(胡兵)이 화광(火光) 중에 들어 천지를 분변(分辨)치 못하며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不知其數)라. 울대 대경(大驚)하여 급히 퇴진(退陣)하며 양천 탄식(仰天歎息)하여 가로되,

“기병(起兵)하여 조선에 나온 후 병불혈인(兵不血人)\*하고 방포 일성(放砲一聲)에 조선을 도모(圖謀)하였으나, 이 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貴妃)를 뵈오리오.”

통곡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제장(諸將)이 호언(好言)으로 권위(綏威)\*하며 의론 왈,

“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 보수할 수는 없사오니 퇴군(退軍)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 왕비와 세자·대군과 장안 물색(長安物色)을 거두어 행군하니, 백성의 울음소리 산천이 움직이더라. 차시 박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적진을 대하여 크게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놈아. 내 말을 들으라. 너의 왕은 우리를 모르고 너 같은 구상유취(口尙乳臭)를 보내어 조선을 침노하니, 국운이 불행하여 패망은 당하였거니와 무슨 연고로 아국 인물을 거두어 가려 하느냐. 만일 왕비를 피쳐 갈 뜻을 두면 너희 등을 함몰할 것이니 신명을 돌아보라.”

하거늘, 호장(胡將)이 차언(此言)을 듣고 소왈(笑曰),

“너의 말이 가장 녹록(碌碌)\*하도다. 우리 이미 조선 왕의 항서(降書)를 받았으니, 데려가기와 아니 데려가기는 우리 장중(掌中)에 달렸으니 그런 말은 구차(苟且)히 말라.”

하며, 능욕(凌辱)이 무수하거늘 계화가 일러 왈,

“너희 등이 일향(一向)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나 나의 재주를 구경하라.”

하고, 언과(言罷)에 무슨 진언(眞言)을 외오더니, ㉢ 문득 공중으로 두 줄 무지개 일어나며 우박이 님아 붓듯이 오며 순식간에 급한 비와 설풍(雪風)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호진장졸(胡陣將卒)이며 말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촌보(寸步)를 운동치 못할지라. 호장이 그제서야 깨달아 가로되,

“당초에 귀비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神人)이 있을 것이니, 부디 우의정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시거늘, 우리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일시지분(一時之憤)을 생각하여 귀비의 부탁을 잊고 이곳에 와서 도리어 양화(殃禍)를 받아 십만 대병을 다 죽일 뿐이라, 골대도 무죄히 죽고 무슨 면목으로 귀비를 뵈오리오. 우리 여차(如此)한 일을 당하였으니 부인에게 비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 호장 등이 갑주(甲冑)를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팔문진(八門陣) 앞에 나아가 복지 청죄(伏地請罪)\*하여 가로되,

“소장(小將)이 천하에 횡행(橫行)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되 무릎을 한 번 꿇은 바가 없더니 부인 장하(帳下)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되,

“왕비는 아니 피쳐 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무수히 애걸하거늘 부인이 그제야 주렴(珠簾)을 걷고 나오며 대질(大叱) 왈,

“a”

한대, 울대 다시 애걸 왈,

“소장의 아우의 머리를 내어 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대소 왈,

“옛날 조양자(趙襄子)는 지백(知伯)의 머리를 옷칠하여 술잔을 만들어 이전 원수를 갚았으니, ㉠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골대 머리를 옷칠하여 남한산성에 패한 분(憤)을 만분지일이나 풀리라. 너의 정성은 지극하나 각기 그 임금 섬기기는 일반이라. 아무리 애걸하여도 그는 못 하리라.”

울대 차언을 듣고 분심(忿心)이 충천하나 골대의 머리만 보고 대곡(大哭)할 따름이요, 하릴없어 하직 하고 행군하려 하니 부인이 다시 일러 왈,

“행군하되 의주로 행하여 임 장군을 보고 가라.”

울대 그 비계(秘計)를 모르고 내념(內念)에 헤오되,

“우리가 조선 임금의 향서를 받았으니 서로 만남이 좋다.”

하고, 다시 하직하고 세자·대군과 장안 물색(長安物色)을 데리고 의주로 갈 때, 잡혀 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리러 통곡하여 왈,

“박 부인은 무슨 복으로 화를 면하고 고국에 안한(安閑)이 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 타국에 잡혀 가는고. ㉡ 이제 가면 하일 하시(何日何時)에 고국산천을 다시 볼꼬.”

하며, 통곡 유체(痛哭流涕)하는 자가 무수하더라.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외쳐 가로되,

“인간 고락은 사람의 상사(常事)라. 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삼년지간에 세자·대군과 모든 부인을 피쳐 올 사람이 있으니 부디 안심하여 무사득달(無事得達)하라.”

위로하더라.

\*병불혈인(兵不血人) : 군사 중에 피 흘린 자가 없음.

\*권위(綣慰) : 위로하다.

\*장안 물색(長安物色) : 한양에서 약탈한 물건들.

\*녹록(碌碌) : 변변치 못함.

\*복지 청죄(伏地請罪) :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함.

## 25.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주제 의식과 거리가 먼 것은? [2점]

— <보 기>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군담 소설의 하나로서, 청나라에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 당시의 치욕을 되갚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26. 위 글의 내용을 단서로 하여 추측하기 어려운 것은? [3점]

① 조선의 국왕이 호장에게 향서(降書)를 써 주었을 것이다.

② 적장인 용골대를 죽여 그 머리를 효수(梟首)했을 것이다.

③ 조선은 호국의 침략에 대비하여 방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다.

④ 호장은 철수하는 도중에 임경업 장군을 만나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⑤ 호국(胡國)의 귀비는 호장에게 피화당을 범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27. 박씨 부인과 호장 사이의 대화에 비추어 보아, ㉠의 답변에 포함될 만한 내용으로만 묶여진 것은? [3점]

- <보 기>

- ㄱ. 너의 죄를 용서한다.
- ㄴ. 골대의 머리를 돌려주겠다.
- ㄷ. 너희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
- ㄹ. 3년 후에 볼모로 잡힌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 ㅁ. 너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자.

- ①  $\neg$ ,  $\sqsubset$   
②  $\sqcup$ ,  $\square$   
③  $\sqsubset$ ,  $\sqsupset$   
④  $\neg$ ,  $\sqsubset$ ,  $\square$   
⑤  $\sqcup$ ,  $\sqsubset$ ,  $\sqsupset$

28. ㉞의 상황과 관련지어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은? [2점]

- ①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옵고  
 님 므옵 둘 디 업서 냇<sup>7</sup>의 안자시니  
 저 물도 님 온 곳<sup>7</sup>하여 우리 밤길 네놓다.

— 왕방연

- ②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에 흘러드러  
반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 뿐이로다  
아희야 고국흥망(故國興亡)을 무려 무엇히리요.

— 정도전

- ③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ㅣ야  
고국산천(故國山川)을 찌는고자 흐라마는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 김상헌

- ④ 동기로 세 몸 되야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고  
날마다 석양 문외에 한숨 겨워 하노라.

— 박인로

- ⑤ 간밤의 우뚝 여흠 슬피 우리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우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져 나도 우리 네리라.

— 원 호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줄거리>

15세기 초엽 헨리 4세 치하의 영국은 라틴어 성경을 통해 지식을 독점하던 교회의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한편, 위클리프의 영어 복음서를 몰래 읽는 영국 백성들 사이에 성직자와 교회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져 간다. 교회 세력은 민중들을 의식화하는 영어 복음서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순회 종교 재판소를 열어 저항 세력을 처단한다. 바비도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신념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갈등하지만 사교의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

(전략)

“처음부터 묻기루 하자. 무슨 마귀의 장난으로 ㉠ 영어 복음서를 읽구 듣구 했지?”

“마귀의 장난이라뇨? 천만에. 우리말루 읽는 것이 왜 그렇게까지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금하니까 옳지 못허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어든지 다 옳습니까?”

“암 그렇구 말구, 교회는 성 페테로(베드로)에서 시작되고 페테로는 직접 그리스도의 위임을 맡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옳단 말씀이쥬?”

“그렇지, 교회의 명령은 교황의 명령이요, 교황의 명령은 성 페테로의 명령, 성 페테로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니까.”

“사실 당신과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기왕 말이 났으니 한 가지 더 묻지요. 간통죄를 용서하고 대신 돈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명령인가요?”

“독신\*두 유분수지 그런 법이 어딴단 말이냐!”

사교는 흥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허어, 저의 옆 옛집 프란시스코의 처가 당장 당신한테서 지난 봄에 그런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교는 안색이 확 변했다.

“아-口, 더 고칠 수 없는 마귀에 걸려들었구나.”

사교는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침착을 보이려고 애썼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너와 교리를 다투자는 건 아니다. 이러다가는 끝이 없으니 사실만 물어보기루 한다. 그래 네 소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치 않습니다.”

“회개한단 말이냐, 안 한단 말이냐?”

“잘못이 없는데 무슨 회개니까?”

“으-口, 알았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빵은 빵, 포도주는 포도주요.”

“너는 그 신성함을 모르느냐?”

“신성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조작이쥬. 하여튼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당신과 나는 자리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졸들이 달려들어 바비도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였으나 사교는 손짓으로 말린다.

“바비도, 한 마디 회개한다고 말할 수 없느냐?”

사교는 애걸하는 어조였다.

“당신은 내게 강요하는 것을 모두 옳다구 확신하십니까?”

“그렇다.”

사교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양심입니까?”

사교는 안색이 변하면서 입을 머뭇거리다가 손을 내저으면서 외쳤다.

“나는 조직, 교회라는 조직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교회의 명령이 있을 뿐이요 양심은 문제가 안 된다.”

“사람을 위한 교환가요, 교회를 위한 사람인가요?”

“사람은 하느님의 교회에 모든 것을 바쳐야지. 교회 앞에서는 죄많은 사람은 보잘 것 없는 물건이야.”

“그럼 사람은 교회의 도구에 불과하군요.”

“도구라도 하느님의 도구니 얼마나 영광이냐?”

사교는 미소를 띠우면서 바비도를 내려다보았다.

“..... 잘 알았습니다.”

“그럼 회개한단 말이지?”

바비도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데 구태여 죽음을 택하는 그 심사를 모르겠구나.”

“산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당신같이 썩은 사람은 살아 있지도 않고 살 가망도 없습니다. 산송장이죠, 구태기가 이물이물하는.”

“무슨 곡절이 있구나, 왜 그러지?”

“곡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것을 이리저리 비틀어 놓은 당신네들한테 있죠.”

“도저히 안 되겠느냐?”

“나는 나대로 인간을 폐업합니다. 이 인간사를 뛰어넘는 길을 가야겠습니다.”

\*독신(瀆神) : 신을 모독함.

### 29. 사교가 바비도에게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사고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② 체면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처럼 꾸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 ④ 잘못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합리적으로 설득하려 하고 있다.
- ⑤ 상황의 위급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30. 법정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3점]

- ①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굳건한 신앙심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 ② 종교가 권력을 탐하게 되면 민중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된다.
- ③ 도덕적 권위는 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권력에 의해 지탱될 수 없다.
- ④ 절대적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언제나 자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⑤ 우리의 삶에서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일은 때로는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 31. ㉠으로 인해 바비도는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2점]

- ① 영어 복음서가 교회의 독점적 권력을 위태롭게 하므로
- ② 영어 복음서를 읽는 것은 교회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므로
- ③ 영어 복음서는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 ④ 성서에 대한 지식의 독점에서 이루어졌던 성직자와 교회의 권위가 파괴되므로
- ⑤ 민중들을 속이고 부패한 행위를 일삼던 성직자들의 불의가 폭로될 수 있으므로

32. [A] 부분을 회색으로 바꾼 것이다.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제시된 지시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바비도 :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옆으로 흔든다.)

사 교 : ㉠ (얼굴을 찡그리며)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데 구태여 죽음을 택하는 그 심사를 모르겠구나.

바비도 : 산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 (정렬하는 눈빛으로) 당신같이 썩은 사람은 살아 있지도 않고 살 가망도 없습니다. 산송장이죠, 구테기가 이물이물하는.

사 교 : ㉢ (참는 것이 자기 직분이라는 듯이 침을 꿀꺽 삼키면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왜 그러지?

바비도 : 곡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것을 이리저리 비틀어 놓은 당신네들한테 있죠.

사 교 : ㉣ (홀가분한 표정으로) 도저히 안 되겠느냐?

바비도 : ㉤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담담한 얼굴로) 나는 나대로 인간을 폐업하렵니다. 이 인간사를 뛰어넘는 길을 가야겠습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도의 사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 인간의 뇌신경세포와 하등동물의 뇌신경세포는 ㉡ 하나하나의 구조와 기능이 같다. 또한 천재와 보통사람의 두뇌의 신경세포수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 시냅스회로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신생아의 뇌는 약 4백~5백g으로 성인 ㉣ 뇌의 약 30% ㉤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된다. 그러나 신경세포의 수는 어른과 같다. 단지 성장함에 따라 신경세포의 크기와 시냅스가짓수가 훨씬 복잡해지고 많아질 뿐이다. 이러한 시냅스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정교성이 지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냅스가지가 덜 발달돼 있으면 지능이 낮고, 잘 발달돼 있으면 지능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학습을 통해 지식을 효율적으로 터득하고 오랫동안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학습을 하면 뇌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회로가 활성화된다. 학습을 연속해서 반복하면 학습의 효과는 더욱 높아지게 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회로는 막히고 녹이 슬어 버린다. 우수한 두뇌는 시냅스회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반복학습과 깊은 사고를 계속하면 뇌의 시냅스회로를 더욱 다양하게 연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치밀한 전기회로는 간단한 회로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학습을 통하면 좋은 머리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지능이 유전된다는 학설은 지난 19세기 말부터 주장됐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일란성 및 이

란성 쌍둥이의 지능의 차이 연구나 백인과 흑인 간의 IQ 차이 등의 연구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그 중에서 IQ는 1904년 프랑스의 비네라는 사람이 교육에 의해 지적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적장애아를 찾아내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시몬과 함께 고안해 낸 지능검사에서 유래한다. 그 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터먼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계승해서 ‘지능지수’, 즉 IQ(Intelligence Quotient)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IQ 검사법으로 뇌의 지능을 정확히는 판정할 수 없다. 이 지능 검사법은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측정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 IQ 측정에 사용되는 문제도 만든 곳과 측정하는 곳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IQ가 지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 그래서 IQ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받아들일 수 있다.

환경에 의해 지능이 결정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개인의 지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숭이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인간의 지능을 가질 수도 없고 인간이 될 수도 없다. 서로 다른 유전자에 의해 인간은 인간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태어난다.

약 4백50만 년 전의 인간과 원숭이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같은 종의 동물이었다. 그러나 그 후 서로 다른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의 변형이 시작되었고(특히 뇌의 변화가 두드러짐.), 이러한 변형이 누적된 결과, 인간과 원숭이의 지능은 오늘날과 같이 전혀 다르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을 두고 볼 때, 그 사람의 지능은 유전에 의해 대부분—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보일 만큼의 부분이 결정되고, 나머지 부분—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보일 만큼의 부분만이 학습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요한 하드웨어는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미세한 구조와 기능은 교육과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은 지양돼야 한다.

앞으로 인간게놈지도와 뇌지도가 완벽히 작성되고 뇌기능과 유전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인간의 뇌와 아주 닮은 컴퓨터나 인조인간의 제조가 가능할지 모른다. 과학의 발전으로 ㉠ 생물학적 결정론(환원론)은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적(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유전자가 변형될 것이며, 변형된 유전자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최초의 지능검사는 지적장애아를 찾아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② 지능검사의 결과는 뇌의 지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학습의 결과로 발달한 뇌의 구조는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습을 하면 뇌의 시냅스회로가 발달하게 된다.
- ⑤ 신생아의 뇌는 성인의 뇌에 비해 볼 때 신경세포의 수에서 차이가 없다.

34. <보기>는 지능의 유전 여부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로 짝지어진 것은? [3점]

— <보 기> —

- ㄱ. 놀이기구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미로 학습의 성적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 ㄴ. 평강공주를 만나기 전까지 한갓 필부에 불과했던 바보 온달은 공주의 열성어린 지도로 고구려의 국운을 걸머지는 장군으로 변신했다.
- ㄷ. 아주 어릴 때부터 격리돼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키워진 일란성 쌍둥이들의 지능지수 상관계수를 조사해 보니 보통의 형제·자매들보다 특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
- ㄹ. 1970년대에 IQ 200의 천재아로 명성을 날렸던 우리 나라의 신동 김 모 군은 10여 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했지만, 20대에 들어서자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청년이 됐다.
- ㅁ. 신경정신계 질환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암을 비롯한 많은 질환이 유전자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유전자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신분열증은 5번 염색체, 우울증은 11번 염색체, 노인성치매는 21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으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ㅁ

35. ㉠ ~ ㉥ 중에서 <보기>의 ‘의’와 쓰임이 가장 비슷한 것은? [3점]

— <보 기> —

그는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적용하여 구체적 방법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상반되는 두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3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널리 알려진 서로 다른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모범적인 사례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날 초어스름이었다. 좀 바쁜 일이 있어 창경원(昌慶苑) 걸담을 끼고 걸어 내려오노라니까, 앞에서 걸어가던 이십 내외의 어떤 젊은 여자가 이 이상히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에 안심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슬쩍 고개를 돌려 또그닥 소리의 주인공을 물색하고 나더니, 별안간 걸음이 빨라진다.

그러는 걸 나는 그저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만 그대로 걷고 있었더니, 얼마쯤 가다가 이 여자는 또 뒤를 한번 힐끗 돌아다본다. 그리고, 자기와 나와의 거리가 불과 지척(咫尺) 사이임을 알고는 빨라지는 걸음이 보통이 아니었다. 뛰다 싶은 걸음으로 치맛기가 웅이하게 내닫는다. 나의 그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는 분명 자기를 위협하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딱딱딱 땅바닥을 박아 내며 걷는 줄로만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여자더러, 내 구두 소리는 그건 자연(自然)이요, 인위(人爲)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일러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어서 가야 할 길을 아니 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나는 그 순간 좀 더 걸음을 빨리하여 이 여자를 뒤로 떨어뜨림으로 공포(恐怖)에의 안심을 주려고 한층 더 걸음에 박차를 가했더니, 그럴 게 아니었다. 도리어, 이것이 이 여자로 하여금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내 구두 소리가 또그닥또그닥, 좀더 재어지자 이에 호응하여 또각또각, 굽 높은 뒤축이 어쩔 바를 모르고 걸음과 싸우며 유난히도 몸을 일어내는 그 분주함이란, 있는 마력(馬力)은 다 내 보는 동작에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한참 석양 놀이 내려퍼지기 시작하는 인적 드문 포도 위에서 또그닥또그닥, 또각또각 하는 이 두 음향의 속 모르는 싸움은 자못 그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의 뒤를 거의 다 따랐던 것이다. 2, 3보(步)만 더 내어디디면 앞으로 나서게 될 그럴 계제였다. 그러나, 이 여자 역시 힘을 다하는 걸음이었다. 그 2, 3보라는 것도 그리 용이히 따라가지 않았다. 한참 내 발뿌리에도 풍진(風塵)이 일었는데, 거기서 이 여자는 뚫어진 옆골목으로 살짝 빠져 들어선다. 다행한 일이었다. ㉔ 한술이 나간다. 이 여자도 ㉕ 한술이 나갔을 것이다.

기웃해 보니, 기다랗게 내뚫린 골목으로 이 여자는 행하니 내닫는다. 이 골목 안이 저의 집인지, 혹은 나를 피하느라고 빠져 들어갔는지, 그것은 알 바 없으나, 나로선 이 여자가 나를 불량배로 영원히 알고 있을 것임이 서글픈 일이다.

여자는 왜 그리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자를 대하자면 남자는 구두 소리에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점잖다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건 이성(異性)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나는 그 다음으로 그 구두징을 뽑아 버렸거니와 살아가노라면 별(別)한 테다가 다 신경을 써 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임을 알았다.

— 계용묵, <구두>

(나) 나의 거처(居處)는 산중(山中)에 있었는데, 바로 문 앞에 큰 시내가 있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큰비가 한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마냥 전차(戰車)와 기마(騎馬), 대포(大砲)와 북 소리를 듣게 되어, 그것이 이미 귀에 젖어 버렸다. 나는 옛날에, 문을 닫고 누운 채 그 소리들을 구분(區分)해 본 적이 있었다. 깊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아(清雅)한 까닭이며,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흥분(興奮)한 까닭이며, 못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교만(驕慢)한 까닭이며, 수많은 축(築)의 격한 가락인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노한 까닭이다. 그리고, 우르릉 쿵쿵 하는 천둥과 벼락같은 소리는 듣는 사람이 놀란 까닭이고, 찬물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운치(韻致)가 있는 성격(性格)인 까닭이고, 거문고가 궁우(宮羽)에 맞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슬픈 까닭이고, 종이창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이 의심(疑心)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소리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다만 자기 흉중(胸中)에 품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아직 요동(遼東)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의 띄약별 밑을 지척지척 걸었는데, 홀연(忽然)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볼 수 없었다. 아마 천 리 밖에서 폭우(暴雨)로 홍수(洪水)가 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건널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하늘을 향하여 묵도(默禱)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湯湯)히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굼실거리고 으르렁거리는 물결에 몸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眩氣)가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祈禱)하는 것이 아니라, 숫제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 사실, 어느 겨를에 그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랴!

그건 그렇고, 위험(危險)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스럽게 물이 성나 울어 대진 않았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들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크게 성나 울어 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 나온 오해(誤解)인 것이다. 요하(遼河)가 어찌하여 울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해야만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젠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너니, 눈엔 위험한 광경(光景)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아, 나는 이제야 도(道)를 알았도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累)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체험한 상황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 반전의 요소를 갖추어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제시한 상황에 대한 논평이나 설명을 생략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하고 있다.
- ③ (가)는 화자가 체험한 구체적 상황을 소재로 삼은 반면, (나)는 상상 속 상황을 소재로 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객관적 대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인간 심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나)는 차이점을 도출하여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 38. ㉠와 ㉡에 담긴 두 사람의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   | ㉠    | ㉡     |
|---|------|-------|
| ① | 해방감  | - 행복감 |
| ② | 안도감  | - 아쉬움 |
| ③ | 해방감  | - 안도감 |
| ④ | 부끄러움 | - 안도감 |
| ⑤ | 안타까움 | - 해방감 |

## 39. (나)의 화자와 유사한 관점을 보이는 것은? [3점]

- 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다. 만일 한번 보기만 하면 반드시 깨뜨려 버리고야 말 것이니,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기 때문이다.
- ② 옛적에 우(禹)가 강을 건너는데, 누런 용(龍)이 배를 등으로 저서 지극(至極)히 위험(危險)했다 한다. 그러나 생사(生死)의 판단(判斷)이 일단 마음속에 정해지자,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혹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아무런 관계(關係)도 될 바가 없었다 한다.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外物)이다. 이 외물이 항상 사람의 이목(耳目)에 누(累)가 되어, 보고 듣는 기능(機能)을 마비(痲痺)시켜 버린다.
- ③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잎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환(後患)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 ④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 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 ⑤ 비가 샌 지 오래 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 40. (나)의 논지로 미루어 볼 때, [도(道)]를 깨닫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2점]

- ① 편안한 삶을 추구함.  
 ② 마음의 평정을 유지함.  
 ③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함.  
 ④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않음.  
 ⑤ 눈에 보이는 외물(外物)을 중시함.